

장성택 숙청과 김정은 정권의 미래

조 한 범 (국제관계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Online Series CO 13-24

김정은 체제의 실세 장성택이 숙청되었다. 2013년 11월 하순 장성택의 최측근인 리용하 당 행정부 제 1부부장, 장수길 부부장이 처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12월 8일 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장성택이 체포되었으며, 12일 사형판결과 아울러 처형이 전격적으로 집행되었다. 이 같은 상황은 북한을 비롯한 대내외에 충격과 아울러 다양한 추론을 가능케 하고 있다. 이 글은 장성택 숙청 사건 분석의 무게중심을 김정은 보다는 세력간 권력투쟁에 두고 있다.

1. 김정은 유일지배체제 강화론

장성택의 숙청에 대해서는 상이한 평가가 있으나 김정은 유일지배체제의 강화를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김정은이 장성택의 권력집중에 대해 우려 했으며, 자신의 권력기반 강화를 위해 제거했다는 것이 유일지배체제 강화론의 기본적 논거이다. 장성택은 김정일 사망이후 급조된 김정은 정권 권력기반 강화의 실질적인 설계자이자 집행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다. 2012년 4월 4차 당대표자 회의 및 최고인민회의 12기 5차 회의를 통해 김정은은 명실상부한 북한의 최고 권력자로서 자리매김했다.

이 같은 외형상 변화의 이면에는 군과 공안권력을 장악한 장성택계의 약진이 있었다. 장성택 자신은 전면에 나서지 않으면서 측근들의 전진배치를 통해 북한권력의 핵심인 군과 공안권력의 장악을 시도했다.

장성택과 정치적 동선을 함께 해온 최룡해는 군 총정치국장에 취임했으며, 북한의 핵심 공안권력인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부의 수장 역시 장성택계인 김원홍과 리명수가 차지했다. 김정은의 국정 운영능력이 충분하지 않고 정치적 경험이 미약하다는 점에서 2012년 4월 이후 진행된 북한 권력엘리트들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 역시 장성택에 의해 주도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장성택 숙청을 김정은 유일지배체제 강화시도로 보는 관점은 이 같은 분석에 기초한다. 장성택에 대한 권력의 집중은 김정은 정권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이 장성택이라는 권력 2인자에 대한 숙청을 주도함으로써 권력기반의 안정을 추구했다는 것이다. 장성택 숙청 후 북한의 매체들은 공개적으로 백두혈통을 강조하고 있으며, 김정은 유일지배체제의 강화를 역설하고 있다는 점도 이 같은 분석의 논거로 제시되고 있다.

2. 권력엘리트 갈등론

장성택의 숙청은 김정은 정권의 권력재편과정에서 밀려난 군부 및 기존 기득권 세력의 반격에 의한 것이라는 또 다른 추론이 가능하다. 우선 김정은이 북한의 권력을 확고하게 장악했다는 점에 의문이 있다. 2012년 7월 단행된 북한 군부 실세인 리영호 전총참모장의 숙청 시 김정은은 정치국 회의를 통한 결정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장성택 숙청도 정치국 확대회의를 통해 결정되었으며, 체포 장면을 공개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권력기반이 확고했던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경우 주요 숙청 과정에서 이 같은 행태를 보이지 않았다. 당 정치국이라는 합의기구를 활용한 점은 리영호와 장성택에 대한 조치의 정당성을 최대한 확보하려 했음을 의미한다. 이는 김정은의 권력이 확고하지 않다는 반증일 수 있다.

권력승계 준비기간과 집권기간이 각각 2년에 불과한 김정은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존재인 장성택을 제거했다는 추론에는 무리가 있다. 김정은 집권 2년간 북한의 군부, 노동당, 행정부 주요 인사 218명 중 44%인 97명이 교체되었다.¹⁾ 특히 리영호의 실각과 아울러 군단장급 이상 군간부의 절반이 교체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정은은 신뢰할 만한 인맥을 구축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점에서 북한지도부의 대대적인 물갈이를 주도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북한지도부의 물갈이 과정에서 당과 내각, 그리고 군에 대한 전반적인 식견을 가진 장성택의 영향력이 컸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김정은 정권의 권력재편 과정에서 김정일 시대의 선군정치체제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군의 실세들은 퇴진을 강요당했으며, 북한군이 가지고 있던 경제적 이권 역시 당과 내각으로 이전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김정은 정권이 선군정치에서 선당정치로의 변화를 모색한 것으로 평가받는 근거이다. 권력재편 결과 북한군은 권력 및 이권 모두에서 배제되는 상황에 직면했다는 점에서 갈등의 소지를 내재하고 있었다. 특히 리영호를 비롯하여 김영춘, 오극렬, 현철해, 그리고 김격식 등 김정은 체제에서 뒤로 밀려난 대부분의 군 실세들은 야전군출신이었다. 김정일이라는 정치적 카리스마가 사라진

1) 통일부, '김정은 체제 이후 주요인사 개편 특징' 자료, (2013.10.8).

상황에서 물리력을 장악한 북한군 실세들이 별다른 저항없이 퇴진했다는 추론에는 의문이 있다.

장성택은 김정일 시대에 비대해진 군부의 권력을 견제하고 군이 장악한 이권을 다시 당과 내각으로 이전하는 북한관 ‘문민화’를 주도했다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장성택계에 의한 권력과 이권의 집중현상이 발생했으며, 이는 북한 군부와 기득권 세력의 반발을 야기했을 가능성이 있다. 금년 장성택의 김정은 현지지도 수행 빈도가 작년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든 것도 장성택에 대한 견제가 점차 현실화된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북한군부의 반발과 아울러 대대적 물갈이로 권력과 이권을 상실한 기득권세력 전반이 반 장성택 전선을 형성했으며, 김정은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개연성이 있다. 최룡해와 김원홍 등 장성택계로 분류되는 인물들은 상황을 주도하기보다는 반 장성택 전선 형성에 동참했을 개연성이 있다.

3. 북한 군부의 부상

친 고모부에 대한 숙청과 잔인한 처형, 그리고 반란의 수괴라는 죄명의 부여는 김정은으로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장성택이 권력에 도전했다고 해도 물리적으로 제거할 필요는 없으며, 정치적 사형만으로도 충분한 응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 입장에서 고모부 처형은 정당화가 어렵다. 정변시도와 여러 추문 등으로 장성택의 숙청명분을 합리화하는 것은 결국 김일성 일가의 정체성에 멩어를 드리울 수 있다. 따라서 장성택의 물리적 숙청은 김정은의 의지가 아닌 제 3세력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전 북한군 총참모장 리영호의 실각과 장성택의 숙청방식은 큰 차이를 보인다. 리영호 실각의 경우 북한의 공식매체를 통해 신병관계로 모든 직무에서 해임한다는 형식을 취했다. 특히 발표문에 ‘리영호 동지’라는 존칭을 사용했으며, 실각 이후에도 리영호의 신병처리에 관한 보도나 소식은 전혀 알려진바 없다. 이에 비해 장성택의 숙청은 극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장성택은 북한 역사상 보기 드문 중대범죄자라는 낙인하에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공개 체포된 이후 4일 만에 전격적으로 처형되었다.

리영호 실각뿐만 아니라 밀려난 북한군 실세들의 신병에 이상이 있다는 정보는 공개된 바 없다. 김정일 사망 2주기 북한군 충성맹세대회에는 그 동안 사라졌던 군 강경파 김격식이 등장했다. 김격식은 12월 8일 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장성택이 국가안전보위부원에 체포당할 당시 앞줄에서 이를 목격하는 장면으로 공개되기도 했다. 김정일 2주기 주석단에는 김영춘을 비롯하여 오극렬과 현철해 등 그 동안 존재감을 보이지 않았던 북한군의 주요 실세들이 여전히 상석을 차지했다. 이들 북한군 실세들이 실제로 영향력을 상실했다면 2주기 주석단의 자리를 차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12월 24일 김정은이 김정일 최고사령관 추대 기념일을 맞아 금수산궁전을 참배할 때 동행한 것은 ‘조선인민민군 지휘성원’들로 모두 북한군 지휘부와 일선군부대 사령관들이었다. 2012년 참배에 동행했던 박도춘 당 비서, 주규창 당 기계공업부장, 김경옥 조직지도부 제 1부부장, 그리고 최부일 인민보안부장 등은 불참했다. 이들은 민간인 출신이다.

장성택의 사형판결과 처형이 특별군사법정을 통해 이루어 졌다는 점도 주목의 대상이다. 김정은 체제에서 군 핵심 보직에 대한 빈번한 교체가 이루어 졌으며, 군 장성들의 잦은 강등과 복권이 반복되는 양상을 보였다. 김정은 집권기간 중 인민군 총정치국장, 총참모장, 인민무력부장, 그리고 작전국장 등 북한군 4대 핵심보직 전원이 교체되었다. 특히 잦은 교체로 인해 총참모장과 인민무력부장의 평균임기는 4~5개월에 불과하다. 2012년 8월 이후 최룡해, 최부일, 김영철, 김명식, 현영철 등 군 핵심인사 8명의 계급이 강등되었으며 이중 일부만이 복권되었다. 이는 군부의 세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북한 군부의 입장에서는 수모에 가까운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장성택의 숙청과 처형 방식은 극도의 분노와 원한관계를 추정케 한다는 점에서 군부의 보복일 가능성이 있다.

장성택 주도의 권력재편 과정에서 무력을 장악한 북한 군부의 불만과 반격을 초래했으며, 북한군내 기반이 취약한 장성택이 제거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장성택이 군을 이용하여 정변을 일으키려 했다는 죄목이 사실일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 정황이 적시되어야 하며, 동원하려 했던 군 내부의 대상 역시 중죄인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그러나 장성택에 대한 판결문 어디에도 이 같은 내용이 없으며, 대부분 장성택계의 경제적 이권의 독점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아울러 판결문 곳곳에는 장성택계의 세력 확산 시도에 대한 북한군부의 비난과 반감이 여과없이 드러나고 있다.

선군에서 선당정치로 선화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이 장성택 숙청 이후 다시 선군정치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²⁾ 최룡해 총정치국장의 부상은 개인적 차원이 아닌 군 세력전반의 위상강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4. 김정은 정권의 향배

김정은이 장성택의 권력기반 강화를 우려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숙청과 처형을 주도했을 개연성은 높지 않다. 김정은의 입장에서 장성택의 숙청은 북한 국정운영 노하우를 지닌 신뢰할 만한 인물의 제거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북한 권력의 속성을 잘 알고 있는 장성택이 김정은과 이해관계를 달리했을 가능성도 높지 않다. 김정은 체제의 권력지형 재편 과정에서도 장성택은 공개적으로 나서기 보다는 측근들을 전면배치하는 신중함을 보였다. 장성택의 숙청은 권력재편 과정에서 밀려난 세력의 반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군부가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권력투쟁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김정은 체제의 북한 권력지형 재편 과정은 장성택 주도의 1단계를 지나 북한군부의 복귀라는 2단계로 접어들 개연성이 있다.

김정은 역시 권력기반 강화를 위해 공안라인과 경제권 장악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김정은 현지도도 수행을 거의 빠짐없이 수행하고 있는 황병서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과 마원춘 당 재정경리부 부부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장성택은 당 행정부를 통해 기존의 공안라인을 장악하고 있었다. 따라서 장성택에 의해 제거된 리제강이 장악하고 있던 당 조직지도부는 당분간 김정은이 신뢰할 수

2) '노동신문', 2013년 12월 22일.

있는 새로운 공안라인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장성택의 체포와 처형을 담당한 국가안전보위부장인 김원홍이 최근 크게 부각되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당 재정경리부를 통해 김정은이 경제권에 대한 직접적인 장악과 아울러 최룡해를 중심으로 군권장악도 가속화할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시도의 성공여부는 불투명하다. 특히 민간인출신으로 숙청된 장성택과 인연을 가지고 있는 최룡해가 야전군을 장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장성택계에 대한 군부의 반격은 상당부분 경제적 이권을 둘러싼 세력다툼의 성격이 짙다는 점에서 김정은의 친정체제 구축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장성택 제거 이후 체제불안정 요소의 증가상황에서 김정은 역시 군부의 물리력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질 것이며, 이는 군부의 위상강화를 가속화하게 될 것이다. 김정일 체제와 달리 김정은은 엘리트간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능력에 한계가 있다. 장성택 숙청이후 대규모의 추가숙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이를 주도할 수 있는 강력한 세력의 부재와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대규모 숙청에 따르는 불안정과 이에 대한 반발 등을 고려한 잠정적 상황일 개연성이 있다.

향후 권력지형은 북한군부의 세력 강화와 김정은 친위세력 형성, 그리고 장성택계 등 권력소의 집단 간의 새로운 역학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군부를 중심으로 하는 보수·강경세력의 부상이 불가피해보이며, 이들에 의한 2차적인 권력투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의 군부는 장성택 제거 및 장성택계에 의한 경제권력 독점을 저지했다는 점에서 1차적인 목적을 달성했다. 따라서 장성택의 숙청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6자회담 복귀 및 대외개방을 통한 외자의 유입이라는 기본 기조를 급격히 변화시킬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북한군부의 위상강화 및 국정운영 컨트롤 타워의 미비라는 상황에서 북한의 대내외 정책이 혼선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대내외적 안정이 필요한 북한이 의도적으로 한국과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도발을 할 개연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의도했던 체제안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북한 내 권력투쟁이 심화될 경우의 도발 가능성은 상존한다. 장성택의 숙청원인이 무엇이든 폭넓은 국정운영 경험과 전략적 사고를 지닌 것으로 알려진 장성택의 몰락은 김정은 정권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킬 것이다. 김정일과 달리 김정은은 북한 권력엘리트의 갈등을 조정할 능력에 한계가 있다. 장성택의 숙청은 불안정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새로운 권력투쟁의 서막일 수 있다. © KINU 2013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